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격돌하는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버락 오바마 (62) 전 대통령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치열한 대선 전에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통화가 부쩍 잦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프 자이언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바이든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선 전략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근황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할지도 모른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대한 우려도 시사하는 것이라고 오바마 측 참모는 전했다.

역명을 요구한 이 참모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패배를 늘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상당수 주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질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보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바이든 캠프의 대규모 선거자금

오바마 rump 재선을 막아라

이든

오바마, 대선전 본격 등판 “바이든 측에 직접 전화해 조언”

28일 모금행사에 클린턴과 동행...트럼프 재선 저지 합심

모금 행사에 역시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한 목소리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을 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같은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8년이나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긴밀한 정치적 관계임에도 틀림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놓고는 그간 대체로 생각이 엇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귀결된 2016년 대선 앞두고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

선에 나서고자 했지만, 오바마 측이 말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NYT는 지적했다.

당시 받아들이지 못한 바이든을 병마로 잃고 힘들어하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앞서 떠난 아들의 바람대로 대선에 뛰어들어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어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만류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하고 말았다.

이때의 일은 바이든 측 참모 사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자리하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측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16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처음 유세를 시작할 때부터 상이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조합이었다고 NYT는 평가했다.

아이비리그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한 교수 출신에 냉정하고 침착한 오바마 전 대통령. 델라웨어를 지역 기반으로 만 29세부터 상원의원으로 전뻬가 굶은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모로 달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권 도전 당시 정치인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미와 풍부한 외교·국방 경험이 정치 경력에 일정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부통령으로 낙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의회에서의 풍부한 인맥을 심분 활용해 ‘오바마케어’ 등 오바마 정권의 역점 정책의 입안을 지원 시켜주는 등 수완을 발휘하며 이런 기대에 화답했다.

한편, 현 백악관 관계자들과 오바마 측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명제 앞에서, 양측이 트럼프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음을 강조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격정적으로 자신의 집권 2기 구상을 펼쳐놓으며 ‘고령 논란’을 불식한 국정 연설 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부분 씻어냈다고 NYT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볼티모어 다리 충돌 대형참사 어떻게 피했나

선박 측 교량 붕괴 전 조난 신호 당국, 즉각 교통통제·대피 조치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선박 충돌로 대규모 교량이 붕괴하기 직전 조난 신호로 교량 교통이 통제되고 대피 조치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2.6km 길이의 교량과 충돌하면서 다리 대부분이 무너졌다.

대형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실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실종자 규모가 최대 20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데다 사고 선박이 충돌 전 조난 신호를 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에 조난 신호를 보냈고 이에 당국자들이 교량 양쪽에서 통행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할 수 있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전했다.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조난 신호가 당국자들이 교량의 일부 통행을 막을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이에 따라 붕괴 당시 교량을 건너는 차량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교통 당국자들도 교통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무너져 있다. 이 사고로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이 잠정 폐쇄됐다. /연합뉴스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미국 ABC 뉴스가 국토 안보부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보도했다.

웨스트 머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조난 신호를 들자마자 교량을 막고 다른 차량들이 건너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물에 빠진 운전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은 볼티모어항을 출발한 뒤 추진력과 동력을 상실했고 표류해 교량과 충돌했다고 밴홀런 의원은 전했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8명의 인부가 있었다. 이 가운데 2명

은 구조됐으나 6명은 실종됐다.

현지 당국은 몹시 차가운 물 온도와 실종된 시간을 고려할 때 실종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27일 오전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종자들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출신이라고 동료 인부는 말했다.

사고 선박이 빠른 속도로 다리와 충돌해 조난 신호를 받은 뒤 차량 통행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후폭풍 러 추가 테러 메시지·희생자 지원 금전 요구 기승

1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발생 후 러시아에서 추가 테러를 부추기거나 희생자 지원 등을 내세운 거짓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온라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 공식 텔레그램 채널인 ‘러시아 경찰 사이버 통보’는 이번 테러 발생 후 10대 학생들에게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저지를 것을 제안하는 온라인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미디어(SNS)와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테러 행위 가담 대가로 10대들에게 25만~100만루블(약 360만~1500만원) 상당의 돈이나 마약, 술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익명의 발송자들은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하면

“매우 후회할 것”, “너뿐만 아니라 네 친척도 다칠 것” 등 협박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한 전문가는 “10대 대부분은 아직 비판적 사고나 충분한 삶의 경험이 없지만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며 “그들은 겁먹은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범죄학자 미하일 이그나토프는 “메시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송되고 있다”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도 “우크라이나 측이 가짜 번호를 이용한 전화나 메시지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러시아 시민들에게 소문, 교통·사회 인프라 시설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며 경계를 요청했다.

코메르산트는 희생자 지원이나 테러 현장 복구 등을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도 활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속수무책 뉴욕지하철 또 ‘선로 밀치기’ 묻지마 범죄

미국 뉴욕주 지하철역에서 강력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퍼피스트사이드 지역의 렉싱턴 애비뉴 125번가 승강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을 선로로 밀쳐 열차에 치어 숨지게 했다. 현지 경찰은 칼트 맥퍼슨(24)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가 피해자인 제이슨 볼츠(54)와 어떤 관계인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맥퍼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는 살인과 총격, 흉기 난동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해 주민 불안이 고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름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기와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달 13일에는 뉴욕 브롱크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 이상이 다쳤다.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어 좌우를 살피다가 기환에게 목을 베이는 사건도 있었다.

캐시 호플 뉴욕 주지사는 이달 초 주 방위군 750명과 주 경찰관 250명을 파견하는 등 조치했으나 주민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당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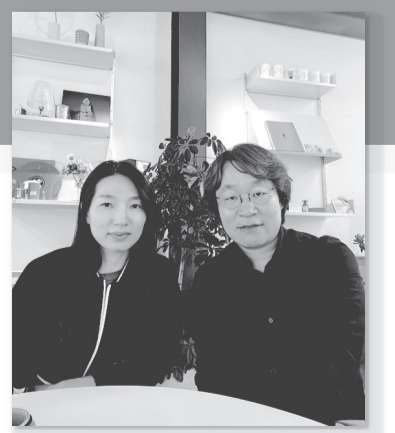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당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